시 론

나의 첫 소설

박 남 기
광주교대 교수

오래전, 어버이날을 맞아 들렸던 고향집 한 켠 서재에서 40여 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나를 기다리고 있던 고등학교 시절의 동인지 '숯불' 창간호부터 3권까지를 만났다. 필자의 글이 처음으로 활자화돼 세상으로 나온 것이 신기해 고향집에 보관해두었던 기억이 난다.

창간호를 펼치니 필자의 첫 단편 소설 「쑥국새 사연」이 눈에 들어온다. 고등학교 2학년 초여름 어느 휴일날 고향에 다녀와 밤늦은 시간에 쓰기 시작해 새벽닭이 울 무렵까지 단숨에 써 내려갔던 기억이 난다. 주말에 고향 앞산에서 할머니와 함께 밭을 매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빼꾸기가 슬피 울어댔다. 곁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쑥국, 쑥국, 쑥쑥국…" 하시면서 혼자 구슬픈 가락의 노래를 부르셨다. 귀를 기울이니 "지집(아내) 죽고 쑥국, 자식 죽고 쑥고, 이내몸 혼자로다."라는 노랫말이 들렸다. 할머니께 무슨 노래냐고 했더니 쑥국새(뻐꾹새)가 슬피 우는 사연이라고 하셔서 좀더 여쭙고, 그 때 들었던 이야기에 살을 붙인 것이 바로 그 단편소설이다.

1977년 동인지 창간호가 출간되자, 회원들이 그 책을 들고 고등학교가 속한 재단 산하에 있던 같은 울타리 내의 여중·고 남중·고 4개교를 돌며 인쇄비를 충당하기 위해 동인지 판매를 했다. 당시 여중에는 훗날 우리나라 10대 단편 작가의 한 분으로 선정된 한승원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셨다. 이제는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의 부친으로 더 유명하다. 동인지를 들고 갔더니 자질이 보인다며 이 길로 가도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당시 필자의 소설 때문에 동인지가 잘 팔렸다는 말도 선배를 통해 들었던 기억도 난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해 들은 담임선생님께서는 네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너를 공부시키는 이유가 딴따라패가 되라고 그런 줄 아느냐며 호통을 치셔서 마음을 접었다. 필자가 더부살이 하던 큰고모집 아들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내 소설을 읽고 시를 지어 국어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시인이 되라고 했다며 내게 자랑했다. 그는 훗날 창작과비평 추천작가로 등단해 지금도 왕성하게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인지를 사알짝 펼쳐 읽어보니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다. 졸업 후 재수를 하면서까지도 절대 하기 싫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교사였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랐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가슴 아픈 상처 입고 오히려 절대 교사는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사대에 다니고 있었다. 대학 2학년이 되면서 국어교육과를 선택하자, 사람들은 내가 문학의 꿈을 키우기 위한 것인 줄로 짐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실은 필자의 마음속에서 문학 소년의 꿈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대학 시절 소설 분석에 대한 강의시간이었던 것 같다. 교수님께서 하나의 소설을 예로 들면서 그 작가의 문체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단어가 몇 번 사용되었는지 등등을 설명하고 계셨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만일 이 길을 가야한다면 차라리 내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지, 남의 글을 분석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아마 무의식 속에는 글을 쓰겠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딱딱한 학술적인 글을 쓰면서도 조금은 말랑말랑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 덕인 것 같다. 대입 준비에 바쁜 그 시절 학생들은 어떻게 동인지까지 낼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 대입제도 덕이었던 것 같다. 예비고사만이 아니라 전 과목 본고사를 봐야했던 시절이다 보니 자신의 생각을 잘 펼쳐내는 글쓰기 능력이 중요했다. '숯불' 문예반을 만들고 지도했던 전원범 선생님(광주교대 교수 및 광주문인협회장 역임)에 따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불러모아 문예반에서 글쓰기 지도를 하는 것이 곧 대입 준비였기에 학교도 크게 반대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시대를 잘 타고난 덕에 지금도 그 시절의 선후배가 모여 동인지를 출판하고 있다. 후배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그 소임을 후배들에게 넘기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김영순의 '문화터치'

연극 '사형수 김대중'을 보고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포스터가 강렬했다. 오며가며 부딪힌 그 포스터에 자연스레 빨려 들어갔다. 빛을 뿜어내는 형형한 눈빛, 그걸 피할 길이 없었다. 어서 오라, 소리없는 말을 건네왔다. 급기야 막공을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아 객석에 앉았다. 어둠이 걷히고 무대에 불이 켜졌다. 연극 '사형수 김대중'과의 만남은 그렇게 이뤄졌다. 연극 '사형수 김대중'은 김대중의 고난과 신념을 생생하게 무대 위에 그려내며, 민주주의가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지 관객들에게 절실히 전해줬다. 그의 고난은 단지 개인의 고통이 아니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투쟁이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현대사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연극을 보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무거웠다. 체포된 김대중은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잔혹한 고문과 협박을 받았다. 극중 고문 장면은 관객으로 하여금 그의 고통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깊은 충격을 안겨줬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내란을 자백하라고 회유하고 협박하지만, 그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몸은 피로와 고통에 짓눌려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빛나며 민주주의를 향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연극 속 이 장면에서 그가 단지 정치인이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의 상징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김대중은 인간적인 두려움에 시달린다. 연극 속에서 그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감 없이 고백하지만, 곧 결연하게 자신의 신념을 다잡는다. 그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고, 이 가치에 대한 헌신은 고난 속에서 더욱 굳건해졌다. 그의 고백을 듣는 순간, 관객으로서 나 또한 민주주의를 향한 그의 각오와 결단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에도 김대중은 감옥 생활을 이어가며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지켰다. 수감 중에도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의 가족과 동료들이 신군부에 의해 탄압을 당하고, 아들 김홍일마저 고문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그는 굳건했다. 그가 감옥에서 보여준 의지는 단지 그의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여정은, 훗날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평화와 화해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권과 평화에 대한 헌신은 전 세계의 인정을 받아 2000년, 그는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다. 이는 그가 겪어온 고난과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최근 한국의 또 다른 인물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인의 목소리가 세계에 울려 퍼졌다. 한강의 수상은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이어 한국의 자부심이 돼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길에 예술과 문학이 더해지는 큰 의미를 남겼다. 이 두 수상은 한국 사회가 이룬 민주주의의 성취와 그 속에서 흘린 눈물과 희생을 전 세계가 기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짜임새있는 연출,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였다. 그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이 무대는 마련되지 못했을 터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달려와 짧은 기간 연기합을 맞춰 이뤄진 연극 '사형수 김대중'이다. 이 연극을 보면서 나는 무대의 위대함을 느끼는 동시에 그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그가 겪었던 고난과 희생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셈이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신념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김대중이 남긴 민주주의와 인권,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남긴다. 연극을 보는 내내 그 정신이 전해져왔다. 어렵사리 얻어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됐다. 연극무대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다.

독자투고

갓길 없는 어두운 밤길 보행자 조심

농민들의 한적한 시골 도로변에서 교통사고 피해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다. 인도 없는 도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스런 곳이다. 특히 고속도로, 일반국도에 비해 시·군도 등 지방도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촌지역 도로망이라고 해서 사고의 예외 지역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농촌지역 여건상 농민들 대부분이 저속으로 운행하는 경운기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 교통수단을 활용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고속주행중인 차량에 한순간 피해를 입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현 도로 실정은 상당수 농촌지역 국도와 지방도에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돼 있을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맘놓고 다닐 수 있는 갓길이 확보되지 않은 곳도 상당수 있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차도만 있지 인도가 없다보니 늦은 저녁 시간대나 이른 새벽은 그야말로 바짝 긴장을 하고 도로변 갓길을 걸어야 한다.

물론 최근에 새롭게 신설되는 도로에는 인도가 반영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갓길 인도가 없는 도로변을 걸어야 하는 보행자는 위험천만한 실정이다.

더욱이 농사일을 마치고 또는 야간 산보에 나서며 농촌지역 어두운 밤길을 걸어야 하는 경우는 더욱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규정속도를 준수한 채 운전하더라도 어두컴컴한 도로에서 갑자기 직면하게 된 도로변 보행자 출현은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도로 여건에서는 자칫 과속까지 하게돼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지극한 논리가 현실에 시급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농민들 또한 현 도로 여건을 감안해 갓길이 없는 도로를 야간에 걸어 갈때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거나 손전등 등 자신의 위치를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기기를 활용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김덕형·장성경찰서 경무계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시민들 입살에 오른 글로벌광주방송의 출연료 특혜

광주시 출연기관인 글로벌광주방송(GGN, 구 광주영어방송)이 출연료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혈세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펴주기식은 맞지 않다며 꾸짖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광진 전 부시장은 '오마이 광주'를 진행하면서 한 시간 60분 기준 30만원으로 주 5일 방송해 월 6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내부 규정상 10분당 4만원을 지급하는 특급 등급보다 1만원 높다. 지상파 3사가 유명 시사 평론가에게 하루 30만원을 책정한 사례는 있지만 흔한 일이 아니라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 해 22억원 규모인 재정,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평균 250여명인 점 등을 감안하면 출연료는 지나쳤다.

2019 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회식, 광주합창제, 광주소년소녀합창제 등의 초청 공연을 갖기도 했던 다문화 소년소녀영어합창단이 총 예산의 1% 정도의 부담 때문에 폐지된 것에 비해서도 그렇다. 게다가 김 전 부시장이 윤도한 사장 임원추천위원장으로 참여했던 만큼 프로그램을 맡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GGN은 영업 비밀, 개인 정보로 인해 자료 제출까지 거부했다고 한다.

경영 위기를 반복하며 올해 초 광주영어방송은 존폐의 갈림길에 섰으나 가까스로 존속할 수 있었다. 사실상 20억원 안팎 광주시 지원금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실정에서 업계 최고의 특급 대우는 온당치 않다. 명백하게 특혜성이고, 시민 정서와도 배치된다.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와 아침 시간대 진행자 섭외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해명이 궁색해 보인다. 국내외 거주 외국인 모두를 아우르며 새롭게 도약한다는 다짐마저 의심받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따끔한 질책은 합당하다. 다른 방송사와 비교해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하니, 상식적인 수준으로 시정돼야 한다. 김 전 부시장도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안타깝다. 개국 15년을 맞은 글로벌광주방송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광주 기회발전특구 성공적인 추진에 사활 걸어야

광주 빛그린국가산단은 모빌리티, 첨단3지구는 인공지능(AI) 특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모두 36만5천평 규모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 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광주시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생태계를 미래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전장부품 및 2차전지 등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AI특구는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핵심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융복합 서비스를 실증·구현한다.

지난 6월 전남을 비롯해 8개 시·도, 이번에 광주를 포함해 6곳이 추가됨으로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에서 특구가 출범한다. 정부는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150여개의 기업이 16조 4천억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이미 착공을 시작한 17조 4천억원을 합할 경우 총 33조 8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 투자액이 74조 3천억원에 달한다. 전남도는 여수·순천·광양·목포·해남 등지에 해상풍력,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수소, 문화콘텐츠 등 5개 신산업 육성을 위한 125만1천평이 선정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실현되도록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시대 새로운 성장거점 토대가 구축됐다는 정부의 평가 속에 비수도권 간 본격적인 경쟁의 막이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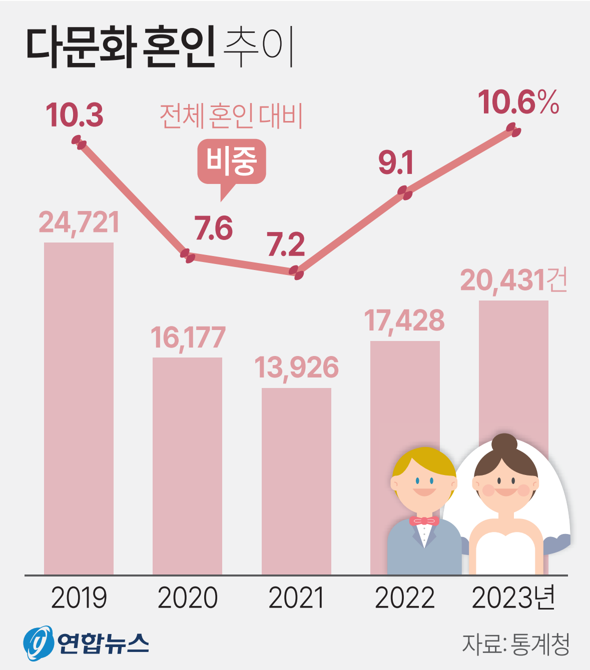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구상이다. 광주시 또한 유망 기업과 손잡고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력해야 한다. 기업이 약속한 투자를 성실 이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공들여야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경기 부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소멸시대다. 최첨단 혁신산업을 선도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사활이 걸렸다. 광주시는 특히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모빌리티와 AI산업에 날개를 달 것인지 주목된다.

그래픽 뉴스

작년 혼인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출생아 비중 5.3%

지난해 부부의 연을 맺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혼인'이었고,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의 비중이 5.3%로 상승했다.

통계청이 7일 공개한 '2023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431건으로 1년 전보다 17.2%(3천3건) 늘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1.5%포인트(p) 상승했다. 다문화 혼인 유형은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가 69.8%에 달했다. 다음은 외국인 남편(17.9%), 귀화자(12.3%) 순이었다. 연령 별로는 남편이 45세 이상인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고 아내는 30대 초반이 23.6%로 최다였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7.2세로 1년 전보다 0.6세 올라갔다. 아내의 초혼 연령은 29.5세로 0.4세 낮아졌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편이 50.1세, 아내는 40.7세였다. 국적 별로 여성은 베트남이 27.9%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17.4%), 태국(9.9%) 순이었다. 남성은 중국(6.9%), 미국(6.9%), 베트남(3.9%) 순이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